

## 일상의 순서를 이어 가다

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으로 출마했을 때의 일이다. 팀원들과 막바지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함께했던 부학생회장 후보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내년 봄에 학교 내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됐어요. 학생들은 아직 모를 테니 선거에 지혜롭게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혜로운 활용이라.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었다. 함께 전화 내용을 들은 팀원들은 모두 흥분에 들떴다. 박빙의 승부를 앞둔 상태로, 결정적인 뒤집기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뻐하며 응성거렸다.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뭐라고 이렇게 어머니까지 ‘지혜로운’ 도움을 주려 하신 걸까. 예상은 쉬웠다. 당시 대학 입시에서는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을 맡으면 가점이 붙거나 해당 전형이 따로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함께했던 후보는 대학을 위해 이 자리를 반드시 얻으려 했었고, 나 역시 내심 원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넙죽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당연히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야 하거늘 말 없는 고민과 침묵을 길게 흘리고 말았다.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전화기 너머 어머니가 매우 당황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노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애매하게 전화를 끊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가 된 분이셨다. 학교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셨고, 나중이야 알았지만 지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다. 게다가 나보다 부학생회장의 인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친구 입장에서는 나의 고민 자체가 곱게 보일 리 만무했으리라.

“교내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박빙이었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 한마디면 전세 역전이다. 학생회장이 된 후에,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학교 측에 건의하고, 결국 에어컨이 설치된다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당당히 당선되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리라. 더구나 나처럼 인기 없는 학생이 학생회장을 꿈꾸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공약이 절실히 필요했다.

학생회장은 소위 인기 많고 잘나가는 학생이 되는 자리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소설책 읽기가 유일한 취미인 내게 인기가 있을 리 없었고, 애초에 당선은 희박했다. 하지만 당찬 고집 하나로 학생회장에 도전하였으니, 이런 기회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위해 했던 ‘진짜 노력’들이 나를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처음 출마를 위해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무슨 황당한 소리냐’는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거늘 선생님은 의외로 나를 적극 응원해 주셨다. 다만 걱정되셨는지 당시 유례없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다른 1학년 학생을 부학생회장 후보로 주선해 주셨다.

“이 친구는 1학년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어머니도 굉장히 적극적이셔. 너와 함께하기에 제격일 거야.”

친구는 전교 1, 2위를 다투는 모범생인 데다 인기도 많았다. 왜 하필 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지금도 궁금하지만, 덕분에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상대팀 후보들은 막강했다. 특히 ‘잘나가는’ 친구들을 모두 꺾고 있는 운동부 출신의 키 크고 말도 잘하는 친구가 압도적인 강적이었다. 친구의 위세는 대단했다. 학교에서 선거 유세하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였다.

할 수 있는 노력은 어쨌든 다 해 보자는 생각으로, 집에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나는 반 친구들에게 한 명씩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횡설수설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나를 뽑아 줘’를 돌려 말하는 나만의 유세였다.

반마다 돌아다니는 연설을 준비했다. 연설은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A4 한 장으로 요약한, 태어나 처음 써 보는 연설문에 혼신을 다했다. 글을 썼다 지우고, 말해 보고 어색하면 지우고 다시 쓰고, 거울 보고 말해 보기를 수십 차례 연습했다. 마침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우렁차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고, 전교를 돌며 훌륭히 연설을 해낼 수 있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선거 운동은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친구들에게 어색하지만 열심히 인사하는 내 모습을 몰래 자랑스러워했다. 함께한 팀원들에게 미안하지만, 혹 떨어지더라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전화한 보람인지, 함께한 부학생회장의 인기 덕인지, 우리는 조금씩 승세를 탔다. 꽤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거의 당선에 가깝다고 치켜세우는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둘 중에 도대체 누가 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었다.

이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선거를 뒤집을 기회를 노리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TV 연설을 며칠 남겨 둔 날, 그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진짜 노력’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다 보니,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 ‘에어컨 공약’으로 이긴다면 내가 한 진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열심히 전화를 걸고 연설 연습에 몰두한 내 모습이 초라해질 것이다. 결정적으로 주체를 따지자면 분명한 거짓말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작은 용단(?)을 내리고, 후보 친구를 불러 말했다.

“어머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에어컨 이야기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참 나, 오빠 나 덕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렵게 도움 주시는데 무시하는 건가요?’라고 핀잔 들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친구가 선택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제 걱정을 많이 해요. 솔직히 대학 갈 때 가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하면 이길 건 확실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도 에어컨은 솔직히 좀 그래요.”

의외의 대답에 순간 감동했다. 사랑 아닌 사랑 같은(?) 감정이 피어오를 정도였다. 끈끈한 동지애라는 게 이런 것일까. 에어컨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더욱 굳건해진 팀워크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17, 18살이 얼마나 대단한 선거를 할

수 있었나마는 마음만은 대통령 선거만큼 진지했다. 선거 운동하는 우리도,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정확히 12표 차이로 떨어졌다. 1000여 명의 학생 투표에서 마지막 2, 3분을 남겨 두고 최종 12표 차이로 학생회장이 결정되었다. 속 시원한 패배였다. 우리가 한 노력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았으니 아쉬우면서도 묘하게 상쾌했다. 패배가 확정되고, 함께했던 후보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아쉬워하면서도, 시원한 미소를 띤 맑은 얼굴이었다.

기억 속에 조금이나마 가깝다면 가까운 청렴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 보니 ‘청렴’은 어떤 위치에서만 지킬 수 있는 ‘수칙이나 도리’라기보다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일상의 순서’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청렴하다는 것은 곧 당연한 순서를 차례대로 이어 갈 뿐이니 고민할 필요 없이 이어 가면 되는 것 아닐까.